

07  
연예  
08

지난 5일 개막한 2008 광주비엔날레가 국내외 미술 관계자들과 해외 언론들의 호평 속에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상하이 비엔날레, 싱가포르 비엔날레, 일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등 여기저기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지난 5일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세계 미술계 유명인사 4명과 함께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미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 세계 미술계 거장들이 본 광주비엔날레

# “외국인 감독 선임·주제 없는 전시 파격 실험 일단 성공”

### 참석자 명단

▲케이 소피(Cay Sophie): 독립 큐레이터·전 스위스 비젤아트 페어 감독

▲크리스천 라템마이어(Christian Rattemeyer): 뉴욕 현대미술관(MoMA) 큐레이터

▲아키라 다테하타(Akira Tatehata): 일본 국립오사카미술관장

▲다니카 산조(Danaka Sanzo): 아시아 신문 문화부기자

사회=박진현 광주일보 문화생활부장

- 이번 대회는 광주비엔날레 사상 최초로 외국인 오쿠이 엔워저 예술감독을 영입한 데다 주제없는 전시라는 점에서 하나의 도전이라 모험이라 할 수 있다. 2008 광주비엔날레를 둘러본 소감이 궁금하다.

▲케이 소피(이하 케이)=무척 인상적이었다. 주제없는 전시이기는 하지만 개별 작품들이 산만하지 않고 물 흐르듯 연결돼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는 물론 한국, 일본 등 평소 서구권에서는 접하기 드물 아시아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어 뜻깊었다.

▲크리스천 라템마이어(이하 크리스천)=광주비엔날레가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슈’다. 한국이나 아시아 등 지역적인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관점에서 현대미술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이지만 현재 미국(샌프란시스코 미대학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쿠이 감독의 독특한 배경이 꽤 넓은 시각에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아우르는 전시를 가능하게 했다. 광주비엔날레가 (신정아 스캔들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 선택한 오쿠이 카드는 성공한 것 같다.

▲다니카 산조(이하 다니카)=오쿠이 감독 선임은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흥미로운’ 도전이다. 파격적인 모험을 선택한 광주가 부럽다. 일본에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있지만 큐레이터를 비롯해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일본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선택하기가



광주일보 주최로 지난 5일 광주비엔날레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 “오쿠이 선임 ‘이슈’

지역적인 틀 벗어나  
현대미술 흐름 조망”

크리스천 라템마이어



“독특한 컨셉트 매력  
역동적인 문화 체험  
하나의 ‘마술 여행’”

아키라 다테하타



“광주, 이미 자격 충분  
세계의 문화도시 되려면  
더 폭넓은 문화 수용을”

케이 소피



“실험적인 것과  
다양성의 조화  
시민 관심도 중요”

다니카 산조



힘들다. 일본도 한국을 모델로 삼아 국제적인 큐레이터를 선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특히 올 가을에는 아시아권에서만 10여개의 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린다. 왜 많은 도시들이 비엔날레에 ‘올인’한다고 생각하는가.

▲크리스천=박물관, 미술관에서도 전시가 열리지만 비엔날레 만큼 예술과 문화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없다. 특히 비엔날레는 각국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정

형화된 미술관 전시와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키라=맞는 얘기다. 미술관 중심의 전시는 틀에 짜여져 있어 컨셉트(concept·미학적 발상)를 풀어내는 힘이 없다. 하지만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는 하나의 컨셉트를 가지고 모든 장르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시 자체가 과정을 한다. 비엔날레는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며 다양한 현대미술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마술여행(magical journey)’이라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미술축제가 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크리스천=우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한국)에서 보면 광주비엔날레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성공한 대회다. 매번 수십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이를 뒷받침한다. 외국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인의 미술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선 광주비엔날레만의 색깔, 즉 고유한 ‘포맷’(형식)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작가들이 질문하는 다양한 주제를 일정하게 유지해가는 게 필요하다.

-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아직도 ‘난해한 전시’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크리스천=우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한국)에서 보면 광주비엔날레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성공한 대회다. 매번 수십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이를 뒷받침한다. 외국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인의 미술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선 광주비엔날레만의 색깔, 즉 고유한 ‘포맷’(형식)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작가들이 질문하는 다양한 주제를 일정하게 유지해가는 게 필요하다.

▲다니카=관람객과 예술의 소통문제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간을 갖고 수많은 도전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는 초등학생이 단체관람을 하는 등 시장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단기적인 해결법 보다는 점진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교육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초·중·고교 등 학교 교육을 통해 장기간 미술교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키라=비엔날레, 뮤지엄 등은 서로 고유한 역할이 있다. 뮤지엄이 과거의 유물을 예술작품 등을 통해 역사적인 담론을 만든다면 비엔날레는 현재,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한다. 작가들의 감각이 20~30년을 앞서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작가는 현대 사회의 맴借此 잘 짚어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좋은 작품은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관람객들은 당장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자주 현대미술과 접해야 한다.

- 현재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인 광주비엔날레는 이 프로젝트의 한 축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비엔날레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케이=광주는 문화중심도시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광주비엔날레가 13년 동안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시아의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의 문화도시로 나가려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인 오쿠이를 총감독으로 영입한 것은 광주가 국제화되고 있다는 좋은 은이다.

▲크리스천=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 세대에 기억(memory)되는 비엔날레가 돼야 한다. 미술관들이 과거의 미술사적 가치들을 현재의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광주비엔날레에서 제기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슈들이 10~20년 이후에 ‘회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다니카=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창설된 비엔날레는 도쿄비엔날레이지만 오래전에 사라졌다. 도쿄비엔날레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실험적이고 급진적이었기 때문이다. 실험적인 것과 다양한 것은 전지차이다. 광주비엔날레의 실험적인 미술이 관람객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면 관람객 스스로 이를 다양한 현대미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도 비엔날레 성과의 중요한 요소다. 광주비엔날레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놀랐다. 일본의 경우 관람객 수가 한국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시민들의 예술 링을 ‘숫자’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정리=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